

불교에 '부처님오신날'이 있다면, 개신교에는 '예수님 오신 날'인 크리스마스가 있다. 추운 겨울, 눈 내리는 밤, 거리를 장식한 트리,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여러 이미지는 한해를 마감하는 분위기와 맞물려 모두의 가슴을 적신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크리스마스는 솔로들에게겐 한숨의 대상이요, 연인들에게엔 로맨스의 시간이기도 하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온 세상을 들쭉이게 만드는 크리스마스가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다. 예수 보살 탄생일, 한해의 마지막 연휴 등 이유가 어찌됐던 간에 크리스마스는 이미 종교를 떠나 만민의 축제가 됐다. 왠지 모르게 특별하게만 느껴지는 크리스마스에 무작정 '방콕'만 하고는 있을 수 없을 터. 연말을 맞아 가족을 비롯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껏 풍성해진 문화공연을 감상하며 종교를 초월한 자비와 사랑의 의미를 느껴보는 크리스마스를 보내보자. 이은정 기자



**#크리스마스 캐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 자칫 잃어버리기 쉬운 '인간성의 회복'을 주요 테마로 해 관객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동화적 판타지 작품. 영국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1843년에 발표한 '크리스마스 캐롤'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구두쇠 스크루지가 크리스마스 전야에 과거, 현재, 미래의 유령과 함께 환상의 시간여행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 년간 스크루지 역을 맡아 완벽한 연기를 선보인 배우 박석용과 서울예술단 40여 명이 출연해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하는 이번 뮤지컬에는 꼬마스타 왕석현군도 함께 출연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돌아볼 줄 알아야 비로소 행복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 스크루지의 판타지 여행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느껴보자. 12월 31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 (02)410-1114

**#이은미 20주년 콘서트 '소리 위를 걷다'**

'맨발의 디바' 이은미가 그녀만의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로 팬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2009년 데뷔 20주년을 맞아 미니 앨범 '소리 위를 걷다'를 선보이며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20개 지역을 투어 중이다. 이번 공연은 특이한 그녀의 화끈하고 환상적인 라이브 무대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무대 위에서는 언제나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맨발의 디바 이은미. 벗어

던 신발과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그의 감동 무대를 느껴보자. 12월 26-27일, 연세대학교 대강당. (02)2123-2114

**#이승환 20주년 기념 콘서트-공(空)**

라이브의 황제, 어린왕자의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니는 이승환이 20주년 기념 콘서트를 연다. 이승환 20주년 기념 콘서트는 크리스마스에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최고의 이승환 밴드와 13인조 브라스 빅밴드가 만들어내는 화려하고 완벽한 사운드, 세련된 무대, 영상, 상상을 초월한 특수효과 등 역대 최고다. 또한 이승환의 가슴 벅찬 히트곡들과 새롭게 발표된 신곡들로 세대와 장르를 초월해 누구나 이승환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12월 24-26일,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 (02)410-1114

**#그대를 사랑합니다**

연극 '그대를 사랑합니다'는 1000만 독자를 울린 강풀의 원작만화로 10만 관객을 감동시켰다. 노인들의 사랑을 통해 '사랑'의 아름다움과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이 연극은 젊은 세대부터 부모님세대까지 모두가 어우러져 즐길 수 있다. 이 시대에 소외된 노인의 현실이 담겨 있어 한 해가 다가고 있는 연말에 주변을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가슴이 훈훈해 지는 작품. 온기가 필요한 계절, 더욱 탄탄해진 스토리와 배우들의 연기가

# 자비♥사랑 가득한 크리스마스 연극 영화 콘서트 '풍성'

가 절로 눈물을 자아내게 한다. 12월 31일까지, 대학로 더극피어터(구 씨어터일). (02)742-9005

**#뮤지컬 웨딩싱어**

유쾌한 웨딩파티를 그린 뮤지컬. 영화 '웨딩싱어'를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 작곡가가 공연 결혼식 파티 가수 로비 하트와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는 결혼식 웨이트리스 줄리아 설리번의 러브 스토리를 다루고 있다. 세대를 넘나드는 흥겨운 디스코 음악과 열정적인 안무가 관객의 시선을 압도하며, 80년대를 유행했던 패션스타일도 이 뮤지컬에서 빠뜨릴 수 없는 볼거리 중의 하나다. 주인공인 로비 하트역에는 배우 황정민과 박건형이 더블 캐스팅 되었으며 줄리아 설리번역에는 방진희가 출연한다. 2010년 1월 31일까지, 충무아트홀 대극장. (02)2230-6600

**#연극 베니스의 상인**

두 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 최고의 배우들과 함께 낭만극으로 돌아왔다. 21세기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사회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베니스의 상인'. 인간 군상에 대한 통찰과 그 삶이 가지는 진정성을 바탕으로 시대를 넘어 관객들과 소통한다. 이번 연극은 이윤택 감독이 연출을 맡아 장르를 넘나드는 그만의 해석과 표현법으로 '베니스의 상인'을 선보인다. 현대에서 고전을 좀 더 재밌게 만나볼 수 있는 기회. 사일록 역에는 배우 오현경, 포사 역에는 윤석화와 김소희, 안토니오 역에는 정호빈이 출연한다. 2010년 1월 3일까지, 명동예술극장. (02)1644-2003

**#모네에서 피카소까지**

유럽 인상주의파 대가들의 걸작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모네

에서 피카소'展에는 우리나라 관람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럽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 96점이 동시에 전시된다. 미국 5대 미술관 중 하나인 필라델피아 미술관이 2007년 성황리에 개최했던 도교전에 이어 한국을 방문한 것. 작품은 반 고흐 2점, 르누아르 7점, 세자 3점, 모네 4점, 마티스 7점, 모딜리아니, 피카소, 고갱, 드가, 마네, 루소의 대표작들이 전시된다. 2010년 3월 28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02)580-1300

**#좋아서 만든 영화**

인생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기에도 짧다. 일명 '묻지 마 밴드'도 아니고 단순히 음악이 좋아서 '좋아서 하는 밴드'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어쿠스틱 음악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서울, 부산, 제천 등 초대받지 않은 투어를 한다. 그 과정 속에서 멤버들은 좋아서 시작한 일이 항상 행복한 것만은 아님을 깨닫고, 진정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과정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볼 만한 공감 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웰컴**

영화 웰컴은 17세 쿠르드인 청년 비탈이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기 위해 35.4km 도버해협을 건너기 위한 과정을 그린 내용이다. 단순히 떠나간 연인을 만나겠다는 일념 하나로 수영으로 도버해협을 건너겠다고 결심하고 전적 수영선수였던 시몬을 만난다. 시몬 역시 아내가 집을 떠난 상태. 시몬도 아내의 마음을 돌리고자 비탈을 돕기 시작한다. 사랑을 위해 목숨을 건 비탈의 도전, 비탈을 보며 진심으로 그의 소원이 이뤄지길 바라는 시몬. 과연 35.4km 너머의 사랑이 어떻게 이뤄지게 될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작품이다.

## 동심 두드리는 찬불동요 '소복'

**좋은벗풍경소리 29집 발매**

어린이 찬불동요를 만들고 보급하는 좋은벗풍경소리(종재 지현) 가을 겨울에도 어김없이 세 앨범을 들고 나왔다. 찬불동요집 29집에는 '눈이 모면 신이나' '운문사 소나무' '호호 손이시러' '산사의 겨울새벽' '스님머리 반짝반짝' '관세음보살님 II' '연' '눈이 와요' 등 8곡의 노래를 수록이 담았다. 10여 명의 젊은 작사·작곡가들이 만든 찬불동요는 눈 덮인 겨울 풍경과 어울리는 불보살들의 마음을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가족에게 따뜻하게 전하고 있다. 음반에는 어린이들의 맑고 투명한 목소리로 전하는 노래와 반주음악이 동시에 실려 전국 단위 연구회와 강습회의 교재나 일선 법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좋은벗풍경소리의 음반은 방학 시즌을 맞춰 매년 여름·겨울 두 장씩 제작 발매하고 있다. 전 노래는 조계종 포교원에서 운영하는 키즈북다 사이트(www.kidsbuddha.org)에 전곡이 등록돼 무료로 음

원과 악보를 다운받을 수 있다. 한편 좋은벗풍경소리는 12월 28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제34대 회장 스님 이·취임 법회 및 붓다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붓다콘서트에서는 제4대 신임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자용 스님(평창 극락사 주지) 취임법회를 봉행한다. 자용 스님은 BBS불교방송 어린이 프로그램 '툼비니동산'을 20여 년째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중앙승가대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원장, 노인요양보호사교육원 원장, 평창 극락사 연화유치원 원장으로 어린이 포교에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다. 콘서트에는 좋은벗풍경소리 이종만 기획실장이 직접 지휘하고 있는 뉴트리파소오케스트라, 청소년 찬불가 합창단 '소리나무', LMB Singers, 소프라노 유현주, 꼬마풍경 등의 음성공방이 준비됐다. (02)723-9836 이상연 기자



## “비워사는 길이 내 인생의 길”

**허허당 스님 '허허당, 비고 빈 집' 선화집 내**

“30년 전 문득 내 안에서 '허허당, 비고 빈 집'이라는 이름이 생겨났죠. 결국 비워 사는 길이 내 인생의 삶이자, 길임을 깨달았죠.” 선화를 그리며 수행을 하는 허허당 스님이 자신의 그림과 시를 함께 실은 책을 출간했다. <허허당, 비고 빈 집>(도서출판 고인돌)의 시와 그림들은 허허당 스님이 자신의 토크에서 방바닥에 건빵을 뿌려놓고 건빵으로 공양을 하며 용맹정진한 열매들이다. 허허당 스님은 이번 선화집을 내는 까닭에 대해 “고해의 바다에서 중생과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은 같이 하려는 자화상”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수행의 원력으로 그림을 그리며, 상처받은 중생의 비원을 화폭에 담고, 시를 쓴다. “중생의자유, 행복, 진리, 공생, 자비, 평화, 사랑을 빼앗고 억누르는 그 어떤 것도 용납 못한다는 것이, 수행자의 절대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스님의 원력은 생명을 대한 절대자유와 존재의 기쁨, 시와 그림이다. 허허당 스님의 작품을 두고 소설가 이외수 씨는 “허허당 스님의 시와 작품은 가시가 살에 박혔을 때처럼, 아하는 탄성을 발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작곡가 김영동은 “스님의 작품은 '음악'이라며 '생명이 생명을 춤추게 하는 오케스트라'라고 표현했다. “수행자의 삶은 하나의 시어아 한다”고 말하는 허허당 스님. 허허당 스님의 수행과 원력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선화와 시를 '허허당, 비고 빈 집'을 통해 만나보자. 이은정 기자



알루보물레 스마나사라 지음 한성례 역 | 46만 양장 | 198쪽 | 값9,500원

# 인간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행복을 감염시킨 행복 바이러스

## 붓다의 행복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고, 일해야 하고, 사회와 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 세 가지는 인생에서 꼭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시한다.

행복한 삶이란 즐겁게 사는 것이 기본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꼭 이 책을 읽어보라.

『화를 다스리면 인생이 달라진다』의 저자 알루보물레 스마나사라 스님이 쓰고 '거리터의 눈물'을 번역한 한성례 선생님이 번역한 행복 쓰나미.

모든 종교의 알맹이는 신앙과 수행이다. 그 중에 불교는 수행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의문이 생길 때 이 책은 수행법 전반에 대한 알기 쉽게 소개한 수행의 입문서이다!

김병홍 지음 | 신국판 | 208쪽 | 값9,500원

## 불교수행법

불교수행법의 핵심적인 문제점을 뽑아 소개  
절 수행·간화선·염불 수행·위빠사나 수행·간경 수행  
사경 수행·계율과 참회 수행·사불 수행·조사선·주려 수행

누구나 이 책으로 불교 수행에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민중사 | 전화 | 02-732-2403-4 | 팩스 | 02-739-7565 | 홈페이지 | www.minjoksas.com